



# '청새치'가 싫은 카스트로만 덩그러니...

(마이애미 말린스)



2017시즌을 마치고 마이애미 말린스에는 거대한 트레이드 폭풍이 휘몰아쳤다. 2루수 디 고든, 우익수 지안카를로 스탠튼, 좌익수 크리스티안 엘리치(왼쪽부터)가 잇달아 마이애미를 등졌다. 스탠튼의 뉴욕 양키스행에 따른 반대급부로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은 스탠튼 카스트로(오른쪽 끝)는 출지에 '피해자'가 됐다. 센트럴시스코·뉴욕 밀워키·마이애미 | AP뉴시스

2018시즌 메이저리그는 개막전부터 풍성한 화제를 뿌리며 출발했다. 날씨 탓에 연기된 2경기를 제외한 13경기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일제히 펼쳐졌다. 올해 개막전을 빛낸 스타들 중에는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거포 지안카를로 스탠튼(29)도 있다. 스탠튼은 토론토와 치른 원정 개막전에서 아치 2개를 그리며 뉴욕 양키스 팬들을 흥분시켰다. 지난해까지 마이애미에서만 8시즌을 보낸 그의 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반면 스탠튼을 잃은 마이애미는 시카고 컵스와 맞붙은 개막전에서 4-8로 패하며 시즌 전부터 드리워진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 ●마이애미 이탈한 '전력의 절반'

마이애미는 2017시즌 후 스탠튼을 비롯한 주전들을 대거 처분했다. 양키스의 레전드 데릭 지터가 경영진에 새로 합류하자 구단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았으나, 첫 작품으로 파이어세일을 단행하자 충격의 강도는 더 컸다. 먼저 2루수 디 고든(30)이 시애틀로 떠났다. 이어 우익수 스탠튼의 뉴욕행, 중견수 마르셀 오수나(28)의 세인트루이스행이 속속 결정됐다. 외야에 홀로 남겨진 크리스티안 엘리치(27)는 이에 반발했고, 결국 밀워키로 이적했다.

이들은 '전력의 절반'이나 다름없었다. 지난 시즌만 해도 고든은 타율 0.308에 114득점 60도루를 올렸다. 내셔널리그 도루왕을 3차례(2014·2015·2017년)나 차지한 그는 팀의 기동력을 떠받치고 있었다(2017년 마이애미의 팀 도루는 91개였다). 중심타선을 이룬 스탠튼-오수나-엘리치의 화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시즌 스탠튼은 59개, 오수나는 37개, 엘리치

스탠튼·고든·오수나 팔아버린 지터 남겨진 엘리치도 반발, 결국 밀워키행 전력 절반 잃은 마이애미 불안감 증폭

스탠튼 이적때 트레이드된 카스트로 탈출 위해선 스스로 몸값 높이는 길뿐

는 18개의 홈런을 터트렸다. 타점도 스탠튼이 132개, 오수나가 124개, 엘리치가 81개였다. 지난해 마이애미가 기록한 홈런(194개)의 58.8%, 타점(743개)의 45.4%를 3명이 담당했다.

### ●떠난 자와 남은 자의 2018시즌 행보는?

초반이라 희비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먼저 남은 자들의 행보를 살펴보자. 마이애미는 현재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우승 후보인 컵스를 상대로 한 개막 4연전에서 2승2패로 선전했으나, 곧이어 마주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강자 보스턴에는 연패를 당했다. 4일 현재 2승4패.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 162경기의 대장정을 치르려면 선수층이 관건인데, 역부족이 우려된다.

마이애미를 떠난 4명의 선수들 중에선 단연 스탠튼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사다. 스탠튼은 4일 새 안방에서 신고식을 치렀다. 개막전에선 홈런 2방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만, 탕파메이와 맞붙은 양키스타디움 데뷔전에선 삼진만 5개를 당했다. 데뷔 첫 5삼진 경기였다. 4번째 삼진을 당했을 때는 일부 팬들의 야유가 터지

기도 했다. 아직은 몸이 털 풀린 듯 타율 0.211에 2홈런 4타점뿐이다. 그러나 건강에 이상만 없다면 애런 저지와 함께 얼마든지 100홈런을 합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고든과 엘리치는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시애틀에서 중견수로 변신한 고든은 개막 이후 4연속경기안타로 순항하고 있다. 엘리치도 1일 샌디에이고전 5타수 5안타의 맹타에 이어 4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선 3-4로 뒤진 9회말 2사 후 동점 솔로포를 쏘며 5-4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개막 직후 2경기에서 침묵했던 오수나 역시 4일 밀워키를 상대로 시즌 첫 홈런을 때리는 등 서서히 발동을 걸고 있다.

### ●유턴 맞은 스탠튼 카스트로

마이애미의 2018시즌 라인업에서 주목받는 선수는 2루수 스탠튼 카스트로(28)다. 4일 보스턴전 선발출전명단으로만 국한해도 그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시즌 중후반 빅리그에 데뷔한 신인급 3명(1번 중견수 루이스 브린슨·4번 3루수 브라이언 앤더슨·8번 포수 채드 월락)을 선발로 내세운 이 라인업에서 카스트로는 유일한 올스타 출신이다.

카스트로는 지난해 양키스 소속으로 112경기에 출전해 타율 0.300에 16홈런 63타점을 올렸다. 올스타로도 뽑혔다. 그러나 스탠튼의 양키스 이적 때 유턴을 맞았다. 이 거래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카스트로는 마이애미에 재차 트레이드를 요청했다. 그러나 좋은 싫든 마이애미에서 새 시즌을 시작했고, 이제 팀의 중심점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탈출에 성공하기 위해 서라도 스스로 몸값 관리를 위한 카스트로다. 전문기자 jace@donga.com

## 마이애미 폭탄세일 흑역사

케빈 브라운·세필드·카브레라...

## 두번의 WS 우승 후 팀주역들 팔아치워

마이애미(전신 플로리다) 말린스는 1993년 확장팀으로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다. 4년만인 1997년 깜짝 돌풍을 일으키며 창단 첫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2003년에도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1988년을 끝으로 지난해까지 29년간 월드시리즈 우승에 실패한 LA 다저스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신흥명문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구단 운영을 들여다보면 마치 '졸부'와도 같은 행태를 거듭했다. 2차례의 월드시리즈 우승 직후 매년 파이어세일을 단행했다. 우승 주역들과 과감히 결별했다.

1997년 우승 직후에는 원투펀치 케빈 브라운과 엘 라이터를 비롯해 마무리 톱넨, 중심타자 게리 셰필드와 모이세스 알루 등을 일제히 정리했다. 브라운은 샌디에이고를 거쳐 다저스로 옮겨 '코리안 특급' 박찬호와 새롭게 원투펀치를 이룬 까닭에 한국팬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이다. 셰필드 역시 박찬호의 도우미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03년 월드시리즈 우승 이후 2년만인 2005년 말에는 투수 조시 벤텔, 3루수 마이크 로웰 등을 폭탄세일의 매물로 내놓았다. 그리고 당시 '트레이드 불가'로 묶여뒀던 거포 미겔 카브레라와 좌완 에이스 돈트렐 윌리스도 2007시즌을 마치고 나란히 디트로이트로 보냈다. 정재우 전문기자

## 정책 기획·구단 마케팅·홍보 등 창의적인 업무 매력

### 스포츠와 함께하는 일자리 탐구

#### 3 스포츠단체 및 구단 직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스포츠 산업 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스포츠 산업은 43조원(2015년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산업 규모는 연 5%씩 성장하면서 종사자와 업체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에 따르면,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배구 남녀프로농구 남녀프로골프에 종사하는 전체 인원은 1만3541명이다(2017년 기준). 선수단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운영단체에 속한 임직원은 205명이고, 종목별 구단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1177명이다. 구단 종사자는 야구(607명)가 가장 많고, 축구(368명) 배구(99명) 남자농구(76명) 여자농구(27명) 순이다.

스포츠 일자리를 찾는 상당수 구직자들은 협회(연맹)나 구단을 염두에 둔다.

우선 알아야 할 건 명칭과 업무 영역이다. 프로리그를 총괄하는 단체와 아마종목을 관리하는 단체의 성격은 다르다.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

는 부분이다. 야구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축구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로 나뉘는데, 종목의 전자는 프로리그, 후자는 아마 및 대표팀을 관리한다. 대한민국의 아마 종목을 총괄하는 단체는 대한체육회이고, 그 산하에 50여개의 가맹단체와 시도 체육회가 있다.

프로종목 단체는 대개 운영(자원), 마케팅 및 홍보, 신사업(미래전략), 관리 등의 영역으로 나뉜다. 물론 종목별로 특화된 조직은 있다. 구단은 선수단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홈 경기장 관리나 유소년 육성 등에 신경을 많이 쓴다.

대부분 수시 채용이다. 자리가 비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사람을 뽑는다.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단체의 채용공고를 수시로 살펴야 한다.

10여년간 야구단에서 근무했고, 현재 6년째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일하고 있는 조연상 사무국장을 만나 스포츠 단체 종사자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다.

26명이 일하고 있는 프로축구연맹은 리그운영, 교육지원, 미래전략, 유소년, 홍보, 마케팅, 경영기획 등 7개 팀으로 운영된다. 경기일정을 짜고 선수등록을 하는 기본 업무부터 유소년

육성정책이나 장기 플랜을 짜는 업무도 포함된다. 채용은 인턴십을 통해 수시로 이뤄진다. 연맹은 지난해 5명을 뽑았다. 축구단 직원은 수시 업무단과 도시민구단 간 편차가 큰데, 10~40명 선이다.

조 국장은 "프로 스포츠는 스타들과 함께 마케팅을 하다보니 화려해 보인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다. 사실 현장에서는 험한 일이 많다. 환상을 깨야만 한다. 실상을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했다.

조 국장은 직원이 갖춰야 할 요건을 3가지 정도로 추렸다.

자신이 원하는 종목을 좋아해야 하는 건 기본이다. 스포츠가 곧 자신의 인생이라고 할 만큼 사랑감이 필요하다.

둘째는 외국어 능력이다. 다른 종목에 비해 글로벌 스포츠인 축구는 더욱 비중이 높다. 모든 업무가 영문으로 이뤄진다. 특히 프로축구는 일본, 중국과 교류가 많다. 이 둘 중 하나의 언어는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기본인 영어에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추가하면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전문영역이 요구된다. 연맹 직원 중 3명이 변호사 또는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대부분 수시채용...공고 수시로 살펴야 사망감·외국어 능력·전문영역 등 필요

조직이 커질수록 법적 다툼이 많아져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회계사는 중계권 사업이나 투자 타당성 등을 판단한다. 향후 노무사나 의료 분야 전문가도 필요하다. 또 구단에서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스포츠 단체에서 일하면서 느낀 매력은 무엇일까. 조 국장은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대기업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다.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정책이나 마케팅을 추진할 때 자신이 중심이 돼 일을 할 수 있다. 본인의 노력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보람이 있다"고 했다.

조 국장은 연맹보다는 축구단에서 먼저 일해 볼 것을 권했다. 그는 "축구를 좋아하고, 에너지가 있고, 도전적인 분에게는 추천해주고 싶지만, 연맹보다는 구단에서 먼저 일을 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최현길 전문기자 choing2@donga.com

※자신이 몸담고 있는 스포츠 직종(직업)을 소개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알고 싶은 스포츠 직종(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연상 한국프로축구연맹 사무국장은 스포츠 단체에서 일하고 싶다면 열정과 외국어 능력, 그리고 자신만의 전문영역을 개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프로축구연맹